

가장 오래된 역사 · 전통 ‘자부심’

51년 약학회 탄생

대한약학회(회장 박만기)는 지난 51년 12월 국내 약학의 진보 발전과 학술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대한약학회에서는 약학 또는 약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발표회, 학술강연회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약학회지를 비롯한 학술 간행물도 다수 발간하고 있다.

대한약학회에는 또 14개의 관련 분과학회가 있어 분과 학회별로 연구도 활발한 편이다. 14개 분과학회는 미생물·면역학을 비롯해 물리약학, 병원약학, 병태생리학, 생화학, 약물학, 약제학, 약품분석학, 약품화학, 위생약학, 임상약학, 천연물과학, 한약학, 개국약사학 등이다. 대한약학회의 임원 및 집행위원으로는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이사, 감사, 간사장 등 36명과 총무, 자문, 집행, 기획, 재무, 학술, 편집, 산학협동, 약학정보, 출판, 재산관리, 국제협력, 약사제도 등 위원회 별로 나눠 각 위원장과 간사 및 여러 위원들로 편성돼 있다. 또한 지역적인 안배를 위해 영남지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연간 예산은 대략 3억3천만원 정도이며 대한약사회의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약사회의 지원은 거의 없는 편이다. 대한약사회의 예산은 회원들에게 매년 6만원씩 받고 있는 회비(단체 회원은 연간 30만원)가 주가 되고 있다. 간간이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 제약회사 등에서 일부 지원금이 지원되기도 한다. 대한약학회에서는 매년 각 분과 학회에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도 하다.

현재 대한약학회의 정식 회원은 2천여명 정도다. 실제 개국하고 있는 전국 약사들의 수에 비해 회원 수가 협소한 원인은 대한약학회 회원 대다수가 약대 교수, 공공기업체 연구소 연구원, 제약회사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한약학회는 오랜 기간동안 개국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드디어 올해 6월 개국약사학을 분과학회로 발족시키기도 했다. 또 약학회지 등이 발송되는 연구소 도서관 등 단체회원도 70여 곳 된다.

국문과 영문판 학회지 발행

대한약학회에서 발간되는 학회지로는 대표적인 ‘약학회지(국문)’가 있다. 약학회지는 대한약학회 창립과 역사를 같이 해오고 있다. 2002년까지 모두 45권이 발행됐으며 연간 6회, 격월간으로 묶여져 나온다.

약학회지에 실리는 논문들은 사전에 편집위원회를 거쳐 신중히 검증된 후 실린다. 편집위원들은 각 분과학회별로 추천된 위원들이 주축이 된다. 국제적으로도 약학회지에 실린 논문이 세계 학자들에게 인용되는 인용지수(0.629)가 국내 학회지 중 여섯 번째로 높다. 대한약학회 관계자는 머지않아 SCI 등재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또 대한약학회에서 간행되는 학회지로 지난 78년 처음 나오기 시작한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영문)’가 있다. 현재 24권이 나왔으며 연간 6회, 격월간 발행된다. 이밖에도 ‘팜 월드(Pharm World)’란 소식지도 연간 4회 발간되고 있다. 이미 지난 80년대 초 ‘대한약학회 삼십년사’도 발간된 바 있다. 현재 대한약학회에서는 한국과학재단 지정 의약품연구정보센터(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 운영)의 지원으로 회원들의 연구인력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인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영문)’과 ‘약학회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약학회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학술대회는 춘계, 추계로 나눠 펼쳐지고 있다. 춘계 학술대회의 경우는 주로 지방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추계 학술대회의 경우는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 창립50주년 학술대회 개최

대한약학회 학술대회는 대개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외국 연자 초청강연을 비롯해 심포지엄 발표, 포스터 전시발표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통 연간 15명 정도의 세계 유명 약학자들이 국내에 초청되고 있으며 신약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학술대회에는 평균 1000명 정도가 강의를 듣기 위해 몰린다고 대한약학회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추계 학술대회에는 학술강연과 함께 대한약학회 총회를 개최, 예산 및 사업내용, 임원 선출 등이 논의된다.

지난해 춘계 학술대회는 대한약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숙명여대에서 열린 창립 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에는 선삼 심포지엄 등 3개의 독립 심포지엄을 필두로 신약개발의 전략 등에 관한 8개의 심포지엄과 모두 452연제에 달하는 포스터 발표 등이 있었다.

개국약사 참여로 회원확대 꾀해

현재 대한약학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 등 3명의 직원이 있으며 사무실은 대한약학회 내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수 만명에 이르는 개국 약사들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것.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개국약사학을 분과학회로 창립, 개국 약사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개국 약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실제 개국 약사들은 대한약학회보다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참석하는 게 전부인 편이다. 또 개국 약사들에게는 신약개발 등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것보다 의약품 조제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크다는 것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학회 관계자는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를 아우르는 대한약사협회의 존재와 약사의 전문화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계 단체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약학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대한약학회가 세계 속에 더욱 비상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신경철 기자〉

인 터 뷰



박 만 기
대한약학회장

“지난해로 대한약학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대한약학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약학이 세계 속으로 발돋움 해 나가는데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저와 대한약학회 회원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박만기(서울대 약대 교수) 대한약학회 회장은 대한약학회 가 의료계 관련단체 학회 중 가장 역사가 깊은 것

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박 회장은 또 올해 안에 ‘약학회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SCI에 등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심사에 들어간다고 했다. SCI에 등재 될려면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질과 학회지 발간시기가 규칙적이어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롭다.

이와 더불어 박 회장은 대한약학회 홈페이지(<http://www.psk.or.kr>)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을 내비쳤다.

“개국 약사 참여 절실”

회원들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한글과 영문판을 효과적으로 게재, 대한약학회의 정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생각이다.

박 회장은 이밖에도 임기 내에 약품상과 학술상 제정을 추진, 신약 개발 등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회장은 회원 확대와 관련,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의 각각 독립적 운영으로 인해 개국 약사들의 회원가입이 거의 없는 편”이라면서 “최근 분과학회로 개국약사학을 창립, 개국 약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또 현재 대한약사회 건물 내에 협소하게 자리한 대한약학회 사무국을 확대하기 위한 건축기금 마련도 심각히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63년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75년 일본 오사카대학 약대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대 약대 학장, 한국분석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문위원, 복지부 중앙약심 위원, 서울대 약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경철 기자〉